

자동차 리콜 87만대... 5년만에 6배 '깡충'

에어백 결함, 시동 꺼짐, 브레이크 불량 등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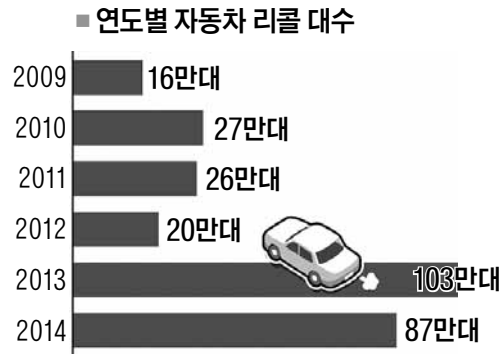
정부 조사 적극적이고 제작 결함 신고 증가 영향

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콜이 87만대를 기록해 5년 만에 5.5배 가량 증가했다. 리콜이 늘어난 것은 제작 결함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다 정부가 결함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에서 리콜된 차량은 432종, 87만대로 집계됐다. 리콜 건수와 대수 모두 예년보다 대폭 늘었다. 국산차가 35개 차종, 73만4000대였으며 수입차는 397종 13만6000대다.

리콜 대수는 2009년만 해도 15만9000대(74종)에 그쳤지만 2010년 27만1000대(137종)로 증가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6만9000대(196종)와 20만6000대(188종)를 나타냈다. 그러다 2013년 103만7000대(195종)로 급증했다. 다만 이는 현대·기아차의 쏘나타 등 15개 차종 66만3000대가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리콜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십만대 규모의 대량 리콜은 없었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리콜 차량 대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차종



수는 122% 증가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차종 수는 484%, 대수는 447% 늘었다. 지난해 리콜 현황을 제작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26만5000대로 대수가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지난 5월 투싼의 에어백 결함으로 12만3000대를 리콜한 바 있다.

SM5의 시동꺼짐 현상으로 16만2000대를 리콜한 르노삼성엔 총 리콜 대수가 18만6000대로 2위였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GM과 쌍용차가 각각 13만4000

대와 13만2000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차는 리콜 대수가 5000대로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적었다.

수입차 업체로는 BMW가 2만9000대로 1위였으며 메르세데스벤츠 2만3000대, 도요타 2만대, 아우디·폭스바겐 1만7000대, 포드 1만6000대 등의 순이었다.

수입차는 리콜 대수가 2013년까지 4만~5만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판매 대수가 급증한 데다 해외리콜 보고 의무화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의 자동차 리콜은 90% 정도가 정부의 권고로 이뤄지고 순수한 자발적 리콜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며 "지난해 리콜 건수가 많았는데 전보다 결함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다 안전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결함조사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리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을 확인하고도 리콜을 미루면 벌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카니발·쏘렌토에서 투싼까지 자동차 광고 '남성모델 시대'

강력한 동력성능 홍보 구매력 높은 남성 겨냥

최근 선보여진 자동차 광고에 남성 모델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어 눈길을 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내놓은 광고에서 남성 모델의 기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5월 출시에 맞춰 제작된 기아자동차 신형 카니발 광고는 패밀리 카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아빠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아빠와 아들이 산으로, 강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담았다. 지난해 9월 공개된 기아차 신형 쏘렌토 광고의 경우 과거보다 대폭 키운 차체, 디자인의 당당함과 성능의 강인함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남자의 존재감'을 주제로 강렬한 남성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최근 공개된 기아차 K3 광고(사진)에도 남성 디자이너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광고에서는 디자이너 강성도가 차량 주행로에 테이프 원단을 깔아놓고 그 위를

K3로 주행하면서 드리프트 등의 기술로 청바지 원단을 위상하는 모습을 그리며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룬 청년의 모습을 표현했다. 오는 17일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의 올 뉴 투싼의 TV 광고 역시 남성 모델이 채운다. 한 남성 모델이 거리를 달리는 영상이 연출되다가 마지막에 신형 투싼이 '노 피어 고 다이내믹(No fear Godynamic)'이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광고가 마무리된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는 최초로 이달 중 판매 400만대 돌파를 앞둔 신형 투싼의 새로운 도전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밖에 한국GM도 총형 세단 말리부 모델로 '지켜주고 싶어서'라는 카피와 함께 배우 정우를 등장시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자동차 광고에 남성 모델이 대세를 이루는 까닭은 최근 업계 추세가 파워트레인 기술 발전에 따라 강력한 동력성능을 홍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동차 구매력이 높은 남성을 겨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연합뉴스



기아차, 중국시장 전용 SUV KX3 출시

기아자동차가 12일(현지시간)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KX3 신차발표회를 갖고, 중국 시장 전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KX3을 출시했다. KX3은 '자신감 있게 나아가다'라는 뜻의 '야오파오'(傲跑<足+包>)라는 중국어 차명이 붙었다.

<기아차 제공>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한 전기 팔 수 있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전력 지침 개정

야간에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기자동차에 충전한 전력을 낮 시간대에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전기

차가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 배터리에 저장한 전력을 발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전 전력 거래제도를 마련했다.

10kW이하 전기차 배터리는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분인이 한전에 역송전한 전력량을 제외한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는 방식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보내려면 앞으로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와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Vehicle To Grid) 표준 등 관련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산업부는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V2G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또 전기 저장뿐 아니라 공급도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저장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게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주차브레이크 만일의 사고 대비 꼭 채워라

Q)주차할 때 주차브레이크 꼭 채워야 하나요?

A)주차브레이크는 경사지는 물론이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주차 시 꼭 채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주차브레이크를 건 후 시동 키를 빼십시오. 또 주행 시작 시에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 해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럴 경우 라이닝이 과열되어 타버리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계기판의 브레이크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주차 브레이크 작동은 금물입니다. 차량 시스템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주행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방지사	시내지국
광 산 062)944-0444	광 천 366-8375
군산시 063)467-2500	남 광 222-9440
정읍시 063)531-5544	남 부 652-0175
	동 광 264-2012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문 흥 267-4748
	백 선 673-4698
	봉 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 하 676-6605
	신 안 512-1732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웅 봉 522-7752
	우 산 512-8116
	운 천 371-9818
	월 곡 961-2339
	중 양 222-1896
	중 흥 224-6604
	진 월 673-1600
	침 단 973-2900
	충 장 224-8212
	치 평 376-6511
	풍 암 682-8112
	하 남 959-1500
	화 정 375-9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